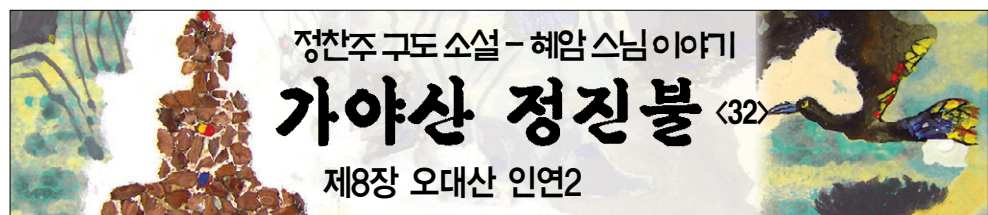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오직 이뵈고 할 뿐입니다”



해암은 안정사 법당으로 들어가 참배했다. 마당에서 있던 안정사 주지가 해암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권했다.

“해암 수좌, 차 한 잔 하고 올라가시오.”
 “주지스님, 다른 날 올겠습니다.”
 “방금 천제굴에 비구니스님들과 마산신도들이 갔어요. 차 한 잔 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을 거요.”
 “성철 스님 뵈러 왔으니 먼저 성철 스님을 뵈어야지요. 사람들이 부산에서 왔건 마산에서 왔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정사 주지는 천제굴의 동향에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천제굴에 많은 신도들이 드나들면서 시골마을 부녀자들이나 찾던 안정사도 도회지 부자신도들이 하나 둘 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정사 주지는 성철뿐만 아니라 천제굴을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애를 썼다.

해암은 단숨에 천제굴로 올라가 인법당 앞에서 소리쳤다.

“스님, 해암이 왔습니다.”
 천제굴 인법당 토방에는 스님들의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잠시 후 성철이 얼굴을 찡그리며 방문을 소리 나게 열어젖히고 나왔다. 사람들에게 시달린 탓인지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암은 성철의 표정을 살피며 걸음을 멈추었다.

성철은 해암을 보는 중 마는 중 하더니 토방에 놓인 고무신들을 소쿠리에 담더니 울타리 밖으로 던졌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수행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세존의 귀에도 들렸다. 그러자 세존은 설법을 중단하고 가섭을 불렀다.

“가섭이여, 여래 자리를 반으로 나눠줄 터이니 여기에 같이 앉자구나. 가섭이여, 그대와 여래 중에 누가 먼저 출가했는가.”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그렇다. 가섭이여, 여래는 너의 스승이고 너는 여래의 제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여래와 함께 앉자는 것이다.”
 세존의 이 말에 아직 세존의 제자가 되지 못한 수행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누더기를 걸쳤다고 비웃었던 수행자는 등골이 오싹하고 모골이 송연하기까지 했다.

어린 비구스님들이 천제굴 밖에서 신발을 찾느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그날 밤, 성철과 해암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철이 말했다.

“해암 수좌, 이번 동안거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오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하고 살면 되지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구들장을 팔 수는 없는기라. 마음 다스리고 살면 되지 않겠나.”
 “전 아직 멀었습니다.”
 “오대산 겨울은 추운기라. 눈 치우다 보면 공부할

성철은 해암에게 의단독로 상태 점검 오대산 서대에서 금생에 견성 성불할것 서원 일타는 분신의 힘으로 적멸보궁 올라 연비

“공부하지 않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중들에게 염라대왕이 신발값 청구할 날이 있을 것이구마.”
 해암은 성철을 따라 인법당으로 들어갔다. 몇 해 전에 구들장을 파고 동안거를 냈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수리가 돼 있었다. 해암은 삼배를 하려고 엎드렸다. 그러자 성철이 한 배만 받고 해암의 손을 잡더니 옆에 앉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어린 비구스님들이 놀라면서 해암을 부럽게 쳐다보았다.

“해암 수좌다. 이 스님의 한 배는 니들 삼천 배 보다 크다.”
 그러나 해암의 모습은 초라했다. 오세암 시절 이전부터 입었던 장삼은 누더기가 다 돼 너털너털했다. 성철은 몸집이 왜소해 더욱 공상맞게 보이는 해암을 강권하듯 옆에 앉았다. 그것을 본 비구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성철 스님, 인법당에 구들장은 왜 다시 놓으셨습니까.”
 “내가 부산병원에 갔다 온 사이에 시자들이 놓아 버린기라. 해암 수좌가 있었으면 못 놓았을기다.”
 “한 췌 나려고 왔는데 그만 가야겠습니다.”
 “해암 수좌에게는 구들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대. 그런 방편을 쓰는 단계는 이제 넘어선 거 아이다.”
 “찾아온 스님과 신도들 못 자게 하려고 구들장을 파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해암 수좌 말도 맞대.”
 성철은 어린 비구스님들에게 지시했다. 해암에게 정식으로 삼배를 시켰다. 그러면서 성철은 어린 비구스님들에게 “중은 누더기가 아니라 얼굴만 보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안다”고 하면서 해암을 격려한 뒤 부처님과 마하가섭 이야기를 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제실 때 이야기다 이 말이야.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원정사를 찾아온기라.”
 그때 가섭은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 풍골이나 공동묘지, 나무 밑에서만 머물며 수행하는 가섭이었으므로 옷은 언제나 더럽고 해져 있었다. 가섭이 설법하는 세존 앞에 앉아 있자 기원정사 밖에서 온 수행자들이 수군거렸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저 사문은 누구인가. 세존 앞에서 위의를 갖추지 않고 설법을 듣다니, 저 사문의 옷에서 퀴퀴한 냄새도 나지 않은가.”

시간이 없대. 그러나 이번 겨울은 나하고 살아야 되는기라.”
 결국 해암은 천제굴에서 겨울을 보내게 됐다. 겨울을 나는 동안 해암은 수시로 자신의 경계를 점검했다. 점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루에 앉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음의 길로 향했다.

그날도 성철이 물었다.
 “화두가 잘 들리나.”
 “스님, 뭐 그렇게 저에 대해서 의심하십니까.”
 해암은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철에게 통명스러운 말투로 대꾸했다. 그러나 성철은 해암을 끊임없이 점검해주었다.

“의심이 간절하게 지어지나 이 말이다.”
 “순일합니다.”
 “그걸 의정(疑情)이라 한기라.”
 “그게 의정이면 어떻게, 또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오직 이뵈고 할 뿐입니다.”
 “됐다. 됐다. 박산 스님은 의심을 눈썹 위에 맺어 놓고 놓아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고 좇으려 해도 좇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대. 무슨 말이고 하니 의심이 간절하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화두가 현전한다. 이 말이야.”
 “저로서는 오세암에서 마친 일입니다.”
 “의심이 하나도 못쳐 목로하던가.”
 성철은 해암에게 의단독로(疑團獨路)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의단독로란 화두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경지를 뜻했다. 번뇌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의심덩어리가 된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타성일편(打成一片)이라고도 했다.

해암은 미소로 답했다. 그러자 성철은 동안거 내내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동안거를 해제하기 전날 해암을 따로 불러 말했다.

“해암 수좌, 오대산으로 가그래이.”
 “지난 가을에는 가지 말라더니 이번에는 왜 가라고 하십니까.”
 “적당한 때에 나도 떠날기다. 천제굴 인연도 다한기라. 풀러오는 사람 때를 나도 감당할 수 없는기라.”
 “저는 오대산 서대와 북대가 비웠다고 하니 들 중에 한 곳에서 살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손 네 손가락을 붓대로 잡고 붓능을 문 뒤 불을 붙였다. 손가락을 태우는 불길을 보면서 ‘옳은 중노릇 하겠다. 부처님 법만을 따르겠다. 속세의 업장을 없애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일타가 연비를 하자, 상원사 주지가 먼저 놀랐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농담하던 수좌들도 기가 질려 일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상원사 선방과 드센 수좌들 기운에 떠밀려 일타가 연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시샘이 섞인 얘기는 곧 묻혀버렸다.

해암에게도 일타의 연비는 자극이 됐다. 해암은 일타보다 정진력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는데 은근히 남패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자신도 따라서 마음에 없는 연비를 할 수는 없었다.

해암은 낮에는 서대에서 좌선을 하고 밤에는 졸지 않기 위해 행선을 했다. 일타가 연비한 뒤로는 비가 오는 밤중에도 오대산 산길을 걸었다. 적멸보궁과 서대 사이를 날이 썰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무려 여섯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단 한숨도 자지 않고 행선을 했다. 이른 첫눈이 외 발이 빠져 행선을 할 수 없게 돼서야 해암은 설악산 오세암으로 옮겼다.

“공부하지 않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하는 중들에게 염라대왕이 신발값 청구할 날이 있을 것이구마”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팔공산 성전암으로 갈 생각이구마. 아마 거기도 여기처럼 요사채를 지어 살아야할기다.”
 “스님, 혹시 일타 스님이 오거든 오대산으로 갔다 전해주세요.”
 “옛 선사 말씀을 명심하그래이. 의단을 타파하면 무명이 깨져 나가고 무명이 깨지면 오묘한 도를 보게 된다 했다. 아이다. 또 선사 말씀에 의단을 깨뜨리지 못하면 맹세코 쉬지 말라고 했대.”
 성철은 일타와 법전, 해암을 믿었다. 일타는 재주가 많아 많은 스님들 중에서 성철 자신과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법전은 심지가 굳어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수좌라고 했으며, 해암은 보기 드문 두타 수행자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연 때문인지 세 사람은 도반으로서 성철을 중심축 삼아 서로 탁마하며 만났다 헤어지곤 했다.

그해 동안거를 해제하던 날, 해암은 성철과 헤어져 즉시 오대산으로 떠났다. 이미 상원사 주지에게 허락을 받아두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서대로 올라갔다. 서대에 결망을 풀 뒤, 바로 적멸보궁으로 가 일주일 동안 하루 3000배씩 하면서 금생에 기필코 견성 성불할 것을 서원했다.

일타가 서대로 함류한 것은 초봄이 지나서였다. 그레도 서대 너와지봉과 응달은 잔설로 덮여 있었다. 한국전쟁 중에 범어사 동산 스님 회상에서 한 철을 함께 산 뒤, 다시 정진하게 된 인연이었다. 일타는 상원사 선방에 있으려다가 분심이 솟구쳐 서대로 왔기 때문에 해암의 일정표대로 정진했다.

아침에 상원사로 내려가 죽을 먹은 뒤 마가목처를 한 잔 하고, 점심 공양은 서대로 올라와 생공알과 솔임으로 생식했다. 물론 오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오후불식이었다. 시장기가 느껴지면 마가목처를 마시며 빈 내장을 달랬다. 어느 날인가는 일타가 점심공양을 준비하느라고 썩지 않은 콩을 고르다가 해암에게 한 마디 들을 때도 있었다.

“일타 스님, 콩은 다 같은 콩이지 무슨 좋은 콩이 있고 나쁜 콩이 있겠소.”
 상원사에서는 거친 수좌들에게 느슨하게 정진한다고 하여 눈치를 봤는데, 서대에서는 먹는 콩을 가지고 해암에게 지적을 당하니 일타는 분심이 더 일었다.

일타는 분심의 힘으로 적멸보궁으로 올라가 오른